

## C-19. 양성 발작성 체위변환성 현기증(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BBPV) 에 대한 임상 증례

김현성\*, 송현중, 임동웅, 권영선, 김소영, 장연선, 김병옥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 교실

BBPV란 머리의 위치를 바꿀 때 안진과 현기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2001년 Penarrpcha 등과 2005 Saker 등이 각각 상악 치조골 증대술, 상악동 거상술 후의 합병증으로 임상증례를 보고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내이는 회전감각을 담당하는 세반고리관,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전정기관, 소리감각을 느끼는 달팽이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BBPV는 주로 50대 이상에서 전정기관의 이석이 허혈로 인해 불완전하게 형성되거나 이석기관의 퇴행성 변화로 유동성 석회화 물질이 쉽게 발생되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 이외에 두부외상, 전정신경염, 메니에르병, 귀수술, 비이과적 수술 후에 나타나기도 한다. 어지러움의 증상은 보통 아침에 더 심하고 오후에는 경미해지며 머리를 회전 시킬 때 심한 어지러움을 느낀다. 진단방법은 Dix-Hallpike검사법이 있으며 치료는 시기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자연 치유 된다. 증례의 1/2에서 회복 후 재발이 나타난다고 한다.

본 증례는 상악 구치 발치 후 상악동 거상술과 함께 임플란트를 매식한 경우로써 술 후 BBPV 증상이 나타나 이에 대한 임상적 고려사항과 치료 방법에 대해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